

마지막 한 걸음, 역사적 순간을 위한 카운트다운

국제로타리, 소아마비 박멸의 역사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의 날이다. 국제로타리가 지난 30여 년간 전세계에서 벌여 온 소아마비와의 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988년만 하더라도 125개 나라에서 발병했던 소아마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3개 나라로 발병 지역이 축소됐으며, 2016년 이후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소아마비가 나타나고 있다. 소아마비 박멸을 향한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안의 위대한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소아마비. 우리에게도 낯익은 질병이며 50대 이상의 경우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몸에 장애를 지닌 이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고 있다. '소아'라는 이름 때문에 영유아나 어린이에게만 발병하는 질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아마비 발병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어른도 소아마비에 걸린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에 몸을 맡겨야 했다.

6~7%의 사망률을 가진 소아마비는 비슷한 이름과 신체의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그래서 때로는 혼동하기도 하는) 뇌성마비보다 훨씬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이다. 소아마비는 폴리오(Polio) 바이러스의 신경계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오염된 물 등을 통한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사라진 듯 하다가도 다시 발병 사례가 나타나기를 반복하기도 하며, 일단 발병하게 되면 치료제가 없어 병을 극복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백신의 개발, 그리고 60년

다행하게도 소아마비는 이미 한반도에서 사라진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이후 소아마비 환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조차 1996년 이후 발병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은 2000년에,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미얀마 등 10개 국가와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2014년에 각각 소아마비 박멸지역으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종적을 감춘 지 35년, 북한에서도 20년 전에 퇴각한 소아마비는 전지구에서 마지막 거점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이처럼 소아마비는 세력이 약해진 질병이며, 곧 완전히 사라져 '21세기의 천연두'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인류가 소아마비라는 질병과 싸우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6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조너스 소크(Jonas Salk) 박사가 첫 번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것은 1955년이며,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 박사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구강 투여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것은 1961년의 일이다. 소아마비의 치료제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지만, 백신을 통한 예방이 가능해지며 소아마비는 인류의 역사에서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99.6%이며, 북한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 99%의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의 날

국제로타리, 소아마비 퇴치의 최전선에서

백신의 개발이 소아마비 퇴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이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로타리의 역할이 컸다. 국제로타리가 최초로 소아마비 면역 캠페인을 펼친 건 1979년이였다. 백신이 개발되고 25년 가량 지난 때였지만, 전세계에서 연간 50만 건이 발병할 정도로 소아마비가 성행했다. 이는 백신의 혜택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유한 국가에 집중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서는 여전히 소아마비의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이었다. 전세계적인 봉사와 구호 활동을 지원, 실시해 온 국제로타리는 1979년 필리핀에서 600만 명의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한 것을 시작으로 저개발국가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불과 5년만에 소아마비의 발병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힘입어 백신 개발 30주년인 1985년에 본격적으로 전세계에서 소아마비를 퇴치하기 위한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론칭하기에 이른다. 이 때, 국제로타리를 이끌던 카를로스 칸세코 회장은 앨버트 세이빈 박사와 함께 “로타리가 20년 안에 이 세상



에서 소아마비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세계 로타리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에 힘입어 폴리오플러스 프로젝트는 시작 3년만에 2억 7,700만 달러를 모금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안이 보여 준 성과는 이 위대한 행진에 여러 든든한 지원군의 동참을 가능하게 했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 등이 참여해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EPI, 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가 창립됐다. GEPI는 현재 창립 기관들과 더불어 빌&멜린다 게이트 재단, 그리고 전세계 주요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적 민간·공공 파트너십으로 규모가 커졌다. GEPI의 규모가 확대되며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만들어졌다. 국제로타리는 전세계 회원들의 재능과 열정을 활용해 소아마비 퇴

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백신 보급을 위한 모금과 각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GEPI의 경영과 관리를 조율하며, 전세계 보건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적·운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실제로 백신을 구입하고 배포하며,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백신 접종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 보건 요원들과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얻어 백신 투여를 담당하고 있다. CDC는 질병 역학자와 공중보건 전문가, 과학자들을 소아마비 발병 현장으로 파견하여 바이러스의 종류와 근원지,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며, 빌&멜린다 게이트 재단은 GEPI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최대 민간 단체로서 국제로타리의 소아마비 퇴치 기부금에 대해 연간 3,500만 달러까지 기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상용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로타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를 퇴치하기 위해 **2억 700만 달러** 이상 기부해 왔다



인증을 위한 경과 시간 새로운 발병 사례없이 2년이 더 지나야 한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보건요원들이 2억 3천만 명의 아동들에게 백신을 투여해 왔다



1988년
발병국 125
퇴치국 71

2015년 현재
발병국 3
퇴치국 193



지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국제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의 다각적인 협력은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발디딜 수 있는 곳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국제로타리는 1985년 소아마비를 향한 선전포고 이후 2015년까지 122개 국가에서 25억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했다. 이를 위해 국제로타리 자체적으로 17억 달러 이상을 모금해 지원했으며, 주창활동을 통해 세계의 정부들이 7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소아마비 퇴치에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노력들은 구체적인 성과로도 나타났다. 1988년 GEPI가 창립될 무렵 연간 3만 건의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나이지리아는 2014년 이후 토착성 바이러스에 의한 신규 소아마비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국제로타리는 나이지리아에 2억7,0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아프

리카 대륙 전체에서 20만 명이 넘는 보건요원들과 함께 2억3,000만 명의 아동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한 결과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소아마비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소아마비 최대 발병국이었던 인도는 1995년 한 해에만 약 3,000건의 소아마비 환자가 보고됐다. 이후 국제로타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20년 간 대대적인 백신 접종 사업을 펼쳤고, 2011년 이후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소아마비 퇴치국의 지위를 얻기도 했다. 소아마비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야생의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은 전세계적으로 2015년 75건, 2016년 34건 등이 보고됐다. 이는 하루에 1,000건씩 발병하던 1980년대에 비해 99.9%가 줄어든 수치이다. 소아마비는 더 이상 70억 인류



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 이런 변화는 30년 이상 국제로타리와 전세계 121만 명의 로타리안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결과는 이제 인류를 위협하던 질병의 완전한 퇴치,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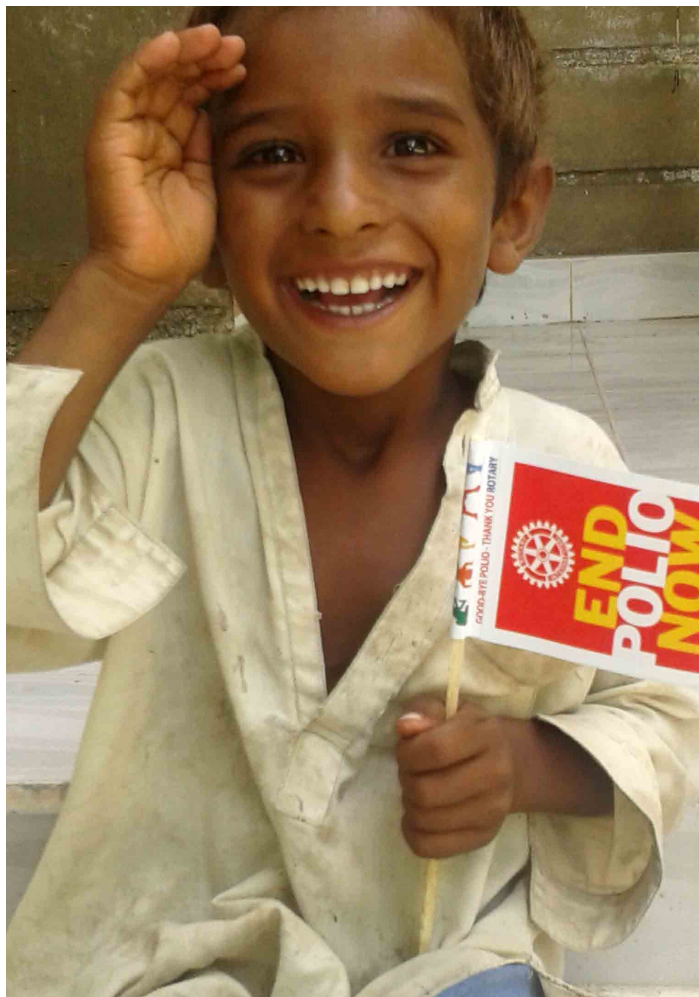
나머지 0.1%를 향하여,

소아마비의 박멸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승전가를 울리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다. 소아마비는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병이며,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는 아직 소아마비가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은 종교적, 지리적, 정치적 영향으로 국제로타리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인 고립과 열악한 보건 인프라는 소아

마비가 발병하더라도 외부세계에 곧바로 알려지기 어려워, 빠른 대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폴리오 바이러스는 2014년 파키스탄에서만 300여 명을 감염시켰다. 2012년까지는 꾸준히 소아마비 환자가 감소했으나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2013년부터 백신 접종이 중단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백신 접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또한 이 두 국가와 인접한 인도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인도에서 소아마비의 퇴치를 선언한 이후인 2016년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아마비는 감시의 작은 허점, 그리고 인간의 방심을 기회로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질병이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잠시의 방심과 안일한 대처로 모두 허사가 될 수 있기에 마지막 0.1%를 지우기 위해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안은 소아마비의 완전한 박멸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요원과 코디네이터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로타리의 소아마비 박멸 작전은 전세계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로타리는 매년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각 지구와 클럽을 독려한다. 이는 세계인에게 소아마비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마지막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후원과 동참,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전세계에서 3,000건 이상의 개별적 행사가 진행됐으며, 올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 약 5,000건의 행사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다. 121만 로타리안 개개인의 작은 참여가 모여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한국의 로타리안이 조금씩 힘을 모은다면, 국제로타리가 30여 년 간 벌여 온 소아마비와의 전쟁은 곧 인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



국제로타리가 주도하는 GPEI는 향후 소아마비와의 싸움에 15억 달러의 추가적인 기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소아마비 야생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나라에서 바이러스의 이동을 차단하고, 60개 나라에 달하는 소아마비 고위험국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소아마비 면역 캠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아마비는 200건 중 1건만 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즉, 199건은 발병을 하더라도 감시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이 중요하다.

소아마비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중단된다면, 10년 안에 연간 20만 건, 40년 동안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과 오래 전 소아마비 완전 퇴치 국으로 분류되어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국제로타리는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두 곳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소아마비 재발병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기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9개 나라에서 기술 지원과 사회적 동원을 위해 사용했다.

카메룬에 3만1,832명의 백신 접종 보건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이지리아에는 지역사회에서 면역의 날을 알릴 현지 홍보요원 1만4,555명을 운영했다. 차드에는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의 손가락에 보라색 표시를 할 마커 9만 5,000개를 보냈고, 여전히 소아마비와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는 6만6,501명의 현장요원과 지휘자, 감독관, 조사

